

10~11월 중 충북지역 경제동향

2024.12

충북경제는 최근 실물경기가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데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 더욱이 11월 들어서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제주체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향후 성장세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① 2024년 10월 중 충북 실물경기는 부진 흐름이 이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세가 이어졌으며 소비 부진이 지속되었다. 다만 수출은 개선되었다.*

* 10월 중 반도체 생산과 수출 통계의 차이 발생 원인 :

전자부품(반도체 등)은 제조업 생산 감소(-13.5%)에 -14.3%p 기여하였으나, 반도체는 수출 증가(+4.0%)에 +23.4%p 기여하였다. 이는 고성능 반도체(HBM)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는 패키징(임가공)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산물량 증가에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 ② 10월 중 고용은 4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었다. 6월 20.3천명에서 8월 11.6천명 → 9월 3.6천명 → 10월 1.8천명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 ③ 10월 중 주택가격은 보합 수준이 지속되었다. 11월 중 소비자물가는 지난 8월 이후 1%대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다.
- ④ 11월 체감경기는 기업과 가계 심리 모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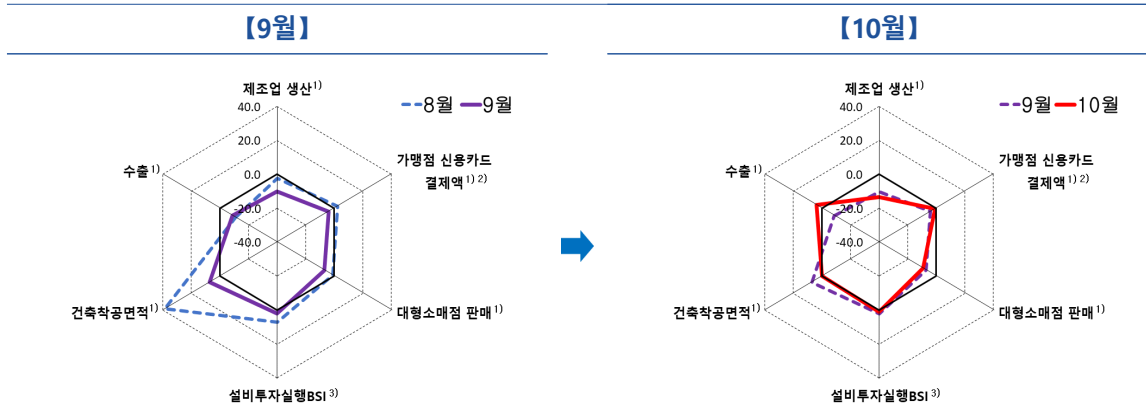
I. 10월 중 생산 및 수요 동향

1. 개황

실물경기는 부진 흐름 지속

1.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실물경기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며 서비스업은 그동안의 증가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설비투자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건설투자는 부진 흐름이 완화되었다. 수출은 증가로 전환되었다.

충북지역 실물경기지표



주 :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 3) 장기 평균치(14.1~23.12월 94) 대비(p)

2. 생산

제조업 생산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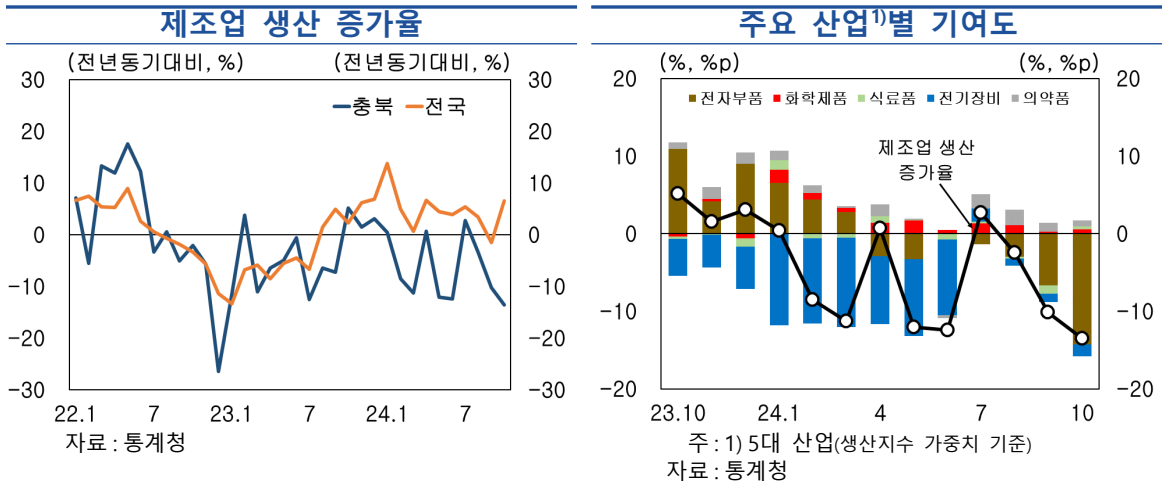
2.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10월 중 충북 지역 제조업 생산은 지역 내 최대 주력업종인 전자부품(반도체 등)¹⁾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3.5% 감소하였다. 생산 감소폭은 8월 이후 점차 확대되었다(7월 중 +2.7% → 8월 중 -3.4% → 9월 중 -10.2% → 10월 중 -13.5%).

【전국】 10월 중 전국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6.5% 늘어나 전월(-1.5%)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반도체 생산은 17.5% 증가하였다(9월 중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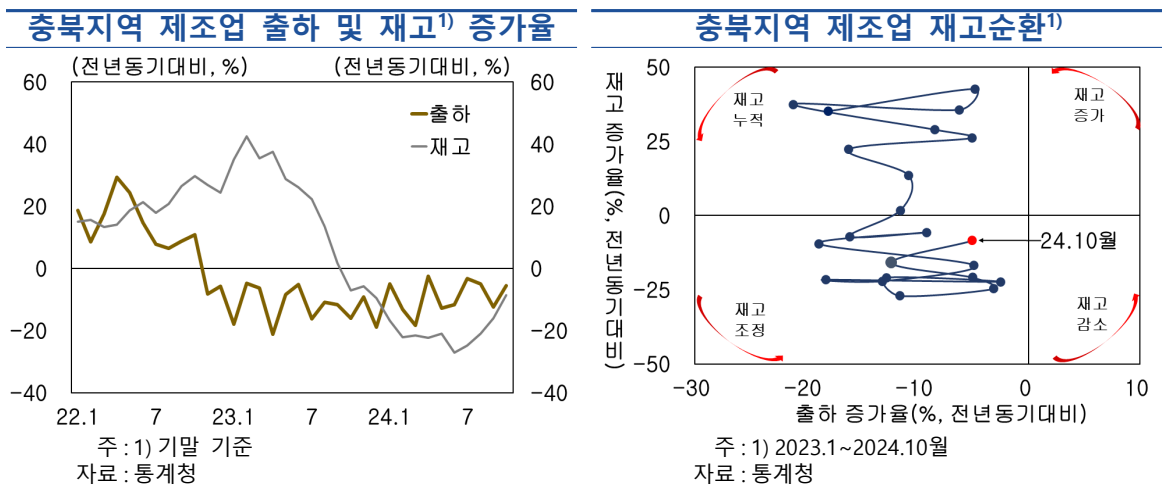
1) 10월 중 전자부품 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1.1% 줄어들며 전월(-20.5%)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2.1. 주요 산업²⁾별 기여도를 보면, 전자부품(기여도 -14.3%p), 전기장비(-1.5%p)는 생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의약품(+0.7%p), 화학제품(+0.6%p), 식료품(+0.4%p)은 감소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³⁾.

2.1.1. 5대 산업 이외에 의료·정밀·광학기기(+0.4%p), 음료(+0.2%p) 등도 생산 감소폭을 제한하였다.



3. 10월 중 충북지역 제조업 재고순환은 재고조정 국면에 있다. 제조업 출하(9월 중 -12.8% → 10월 중 -5.5%)는 2022년 11월 이후, 재고(9월말 -15.9% → 10월말 -8.5%)는 2023년 10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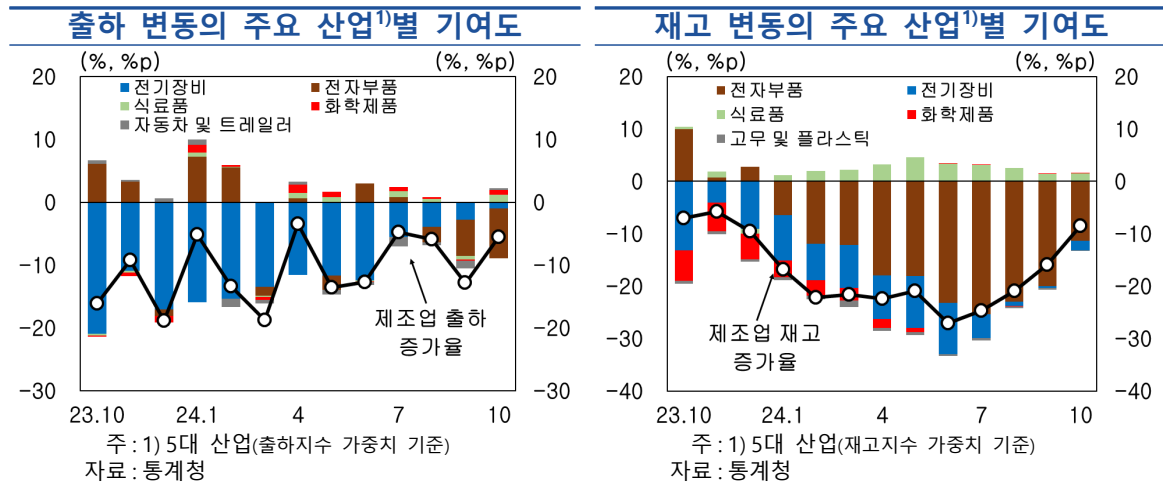


2) 제조업 내 업종별 가중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부품(23.0%, 비중), 2. 화학제품(12.7%), 3. 식료품(12.2%), 4. 전기장비(10.9%), 5. 의약품(9.7%), 6. 고무 및 플라스틱(5.3%), 7. 자동차 및 트레일러(4.2%), 8. 금속가공(3.5%), 9. 기타 기계 및 장비(3.5%), 10. 비금속광물(3.3%) 등이다.

3) 증가율로 보면, 의약품(9월 중 +10.6% → 10월 중 +6.1%, 전년동기대비), 화학제품(+2.8% → +7.0%)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식료품(-9.7% → +3.4%)은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전자부품(-21.7% → -51.1%), 전기장비(-8.7% → -13.9%)는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3.1. 10월 중 제조업 출하(-5.5%)는 전자부품, 전기장비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산업별 기여도를 보면, 전자부품(기여도 -7.9%p), 전기장비(-1.0%p), 고무 및 플라스틱(-0.2%p) 등이 출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2. 제조업 재고(-8.5%)의 감소는 주로 전자부품(기여도 -11.3%p)에 기인한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흐름 주춤

4.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증가 흐름이 주춤하였다. 10월 중 충북지역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⁴⁾은 전년동기대비 0.7% 줄어들며 전월(-3.9%)에 이어 감소하였다. 금년 들어 소폭의 증가세를 이어가던 매출 증가세가 9월 이후 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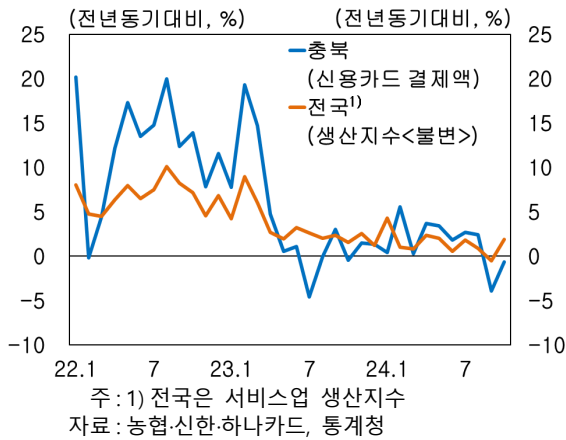
【전국】 10월 중 전국 서비스업 생산(불변지수)은 전년동기대비 1.9% 늘어나며 전월(-0.5%)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4.1. 이는 도소매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업종⁵⁾별 기여도는 각각 -1.6%p, -0.2%p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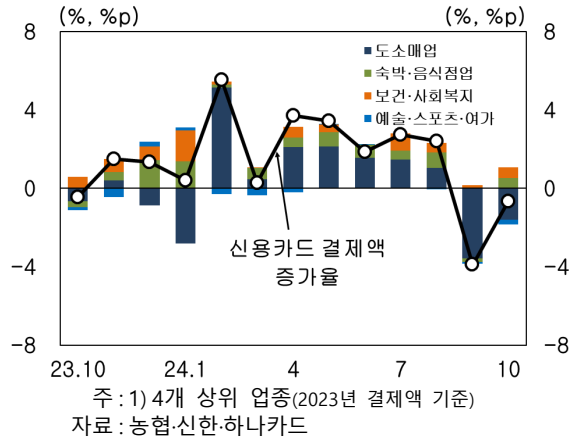
4) 국내 신용카드 3사(농협, 신한, 하나) 결제액 기준이다. 2019.1/4~2024.3/4분기 중 충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전년동기대비)과 역내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액 증가율 간의 상관계수는 0.92로 정(正)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 또한 2019.1~2024.10월 중 전국의 지표 간 상관계수도 0.87로 강한 정(正)의 상관성을 보였다.

5) 2023년 중 충북지역 가맹점의 신용카드 3사 결제액 중 주요 업종별 비중을 보면, 도소매업(52.4%), 숙박·음식점업(23.5%), 보건·사회복지(7.4%), 예술·스포츠·여가(4.0%) 등의 순이다. 동 업종의 서비스업 내 매출액(2022년) 비중은 각각 51.6%, 10.2%, 9.5%, 2.6%이다(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충북지역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



주요 업종¹⁾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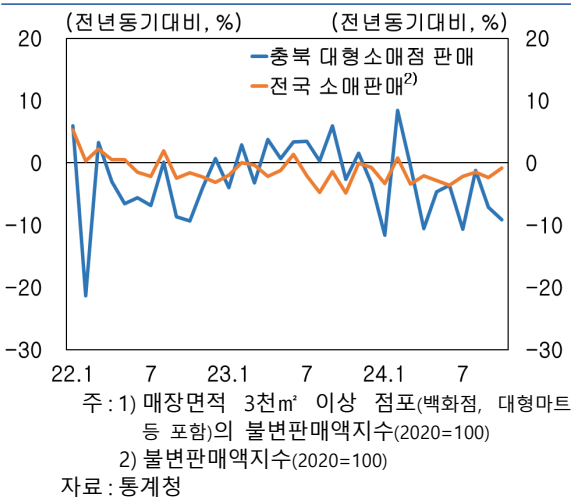
3. 수요

소비 부진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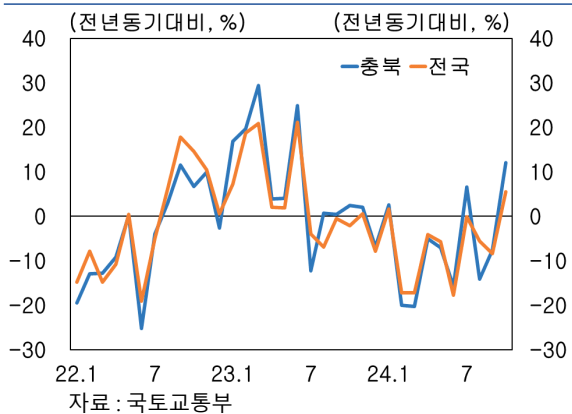
5.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10월 중 충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9.1% 줄어들며 전월(-7.1%)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다만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동기대비 12.0% 늘어나며 전월(-7.6%)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전국】 10월 중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8% 줄어들며 전월(-2.4%)보다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는 5.5% 늘어나며 전월(-8.3%)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대형소매점¹⁾ 판매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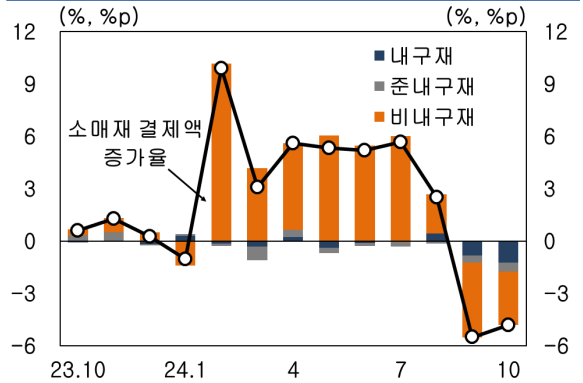
6.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개인의 역내 소비도 증가세가 약화되었다. 충북지역 개인의 역내 소비⁶⁾는 전년동기대비 0.1% 증가하였다. 2024년 1~8월 중 연평균 3.6% 늘어나며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9월 중 감소로 전환(-2.3%)된 후 10월 중에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한편 10월 중 소매재 소비는 비내구재(기여도 -3.1%p)를 중심으로 4.8% 감소하였다.

충북지역 개인의 역내 신용카드 사용액



주 : 1) 개인(청구지 기준)의 역내(가맹점 기준) 신용카드 결제액
2)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계
자료 : 농협·신한·하나카드, 통계청

소매재¹⁾별 기여도



주 : 1) 개인(청구지 기준)의 역내(가맹점 기준) 신용카드 결제액 중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의 계
자료 : 농협·신한·하나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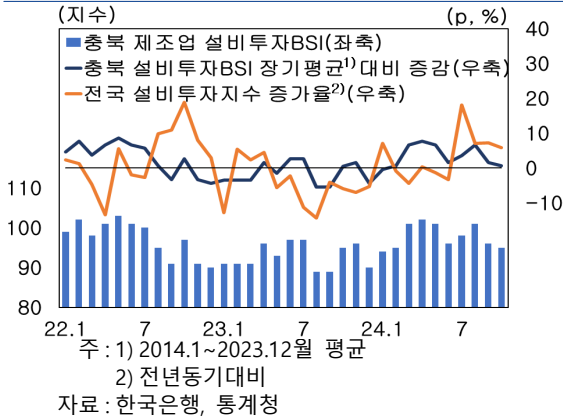
설비투자 개선세 지속

7.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설비투자는 개선세가 이어졌다. 10월 설비투자실행BSI는 95로 전월(96)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금년 2월부터 장기 평균치(94, 14.1~23.12월)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기계류 수입액도 전년동기대비 9.0% 늘어나며 전월(+8.2%)에 이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기초 산업기계(기여도 +15.4%p), 기타 기계류(+3.6%p)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산업기계(-8.1%p), 수송기계(-2.7%p)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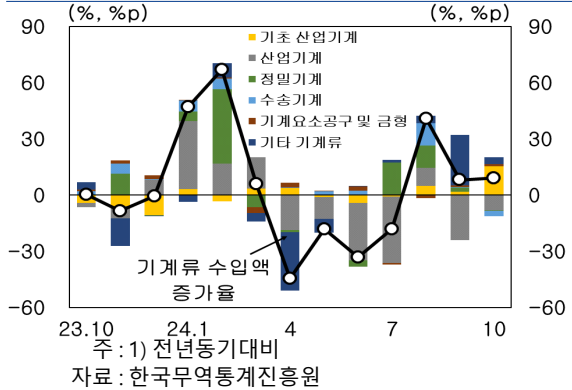
【전국】 10월 중 전국 설비투자(통계청 설비투자지수 기준)는 전년동기대비 5.8% 늘어나며 전월(+7.3%)에 이어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기계류가 12.6% 증가하였으나 운송장비는 10.2% 감소하였다.

6) 국내 신용카드 3사(농협, 신한, 하나)의 결제 대금 청구지가 충북인 개인이 역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 기준이다.

충북지역 설비투자실행BSI



충북 기계류 수입액¹⁾ 및 품목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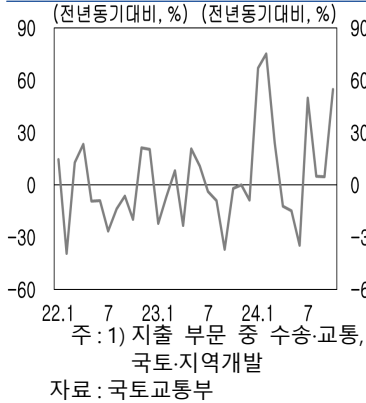


건설투자 부진 다소 완화

8. 10월 중 충북지역 건설투자는 부진한 흐름이 완화되었다. 10월 중 SOC 관련 예산 지출액이 54.7% 늘어나며 전월(+4.8%)보다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건축착공면적은 공업용(기여도 -11.6%p), 주거용(-8.7%p)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0.1% 감소하였다(9월 중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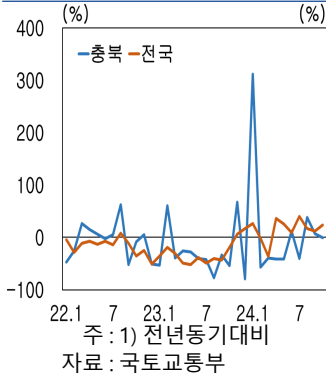
【전국】 10월 중 전국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3.6% 늘어나 전월(+11.8%)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충북 SOC 관련¹⁾ 예산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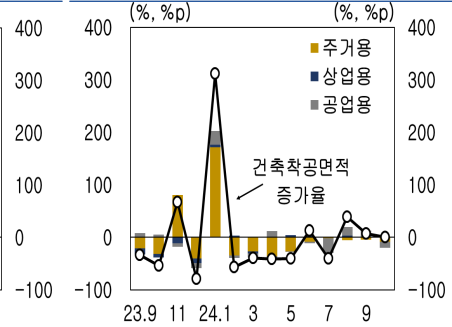


건축착공면적

【증가율¹⁾】



【충북 용도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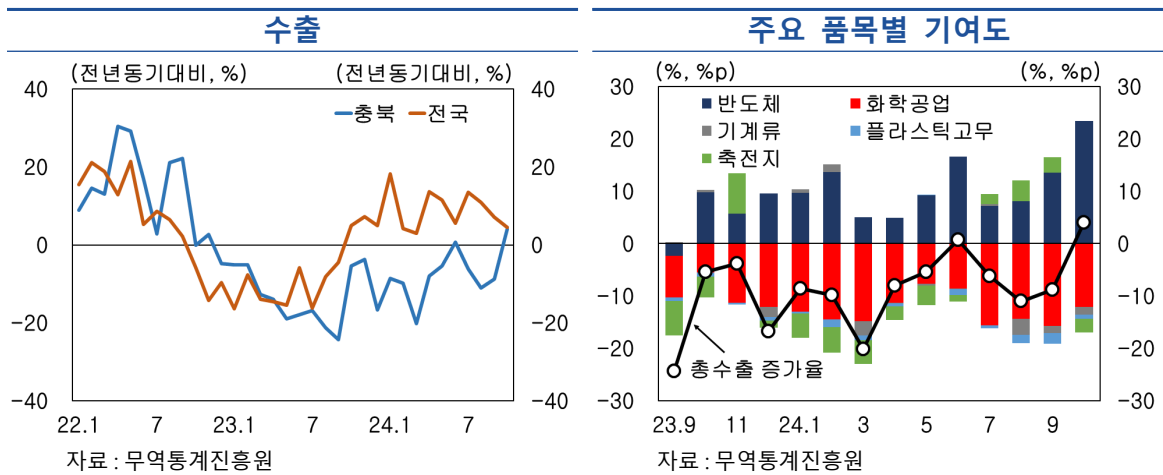
수출 증가 전환

9.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수출은 부진한 흐름이 완화되었다. 10월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0% 늘어나며 전월(-8.8%)의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었다. 지난 6월 일시적인 증가 전환 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전국】 10월 중 전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6% 늘어나며 전월(+7.1%)에 이어 증가하였다.

9.1. 주요 품목⁷⁾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 증가는 주로 반도체(기여도 +23.4%p)에 기인한다. 반면 화학공업제품(-12.1%p), 축전지(-2.6%p), 기계류(-1.4%p) 등은 증가폭을 축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9.1.1. 한편 화학공업제품의 감소는 2차전지 소재의 수출 부진에 주로 기인한다. 10월 중 충북지역 양극재 등 전지 소재⁸⁾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91.4% 감소하였다⁹⁾. 2023년 5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년 1~10월 중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9% 감소하였다.



9.1.2. 국가¹⁰⁾별로는 대만(기여도 +28.7%p), 말레이시아(+4.5%p) 등에 대한 수출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미국(-7.2%p), 중국(-6.8%p), 홍콩(-5.9%p) 등은 감소 요인이었다.

▶ 10월 중 충북 수출 증가율(+4.0%)에 대한 주요 국가별 기여도(%p)

중국	미국	홍콩	폴란드	베트남	대만	일본	헝가리	인도	말레이시아
-6.8	-7.2	-5.9	-4.3	-0.8	+28.7	0.4	-3.1	-0.1	+4.5

7) 2023년 중 충북 수출에서 반도체는 28.5%, 화학공업제품은 25.2%, 기계류는 11.3%, 축전지는 9.2%, 플라스틱고무제품은 6.0%를 차지한다.

8) 한국무역통계진흥원 HS코드의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의 기타(코드번호 284190)' 기준이다.

9) 양극재 등 2차전지 소재를 제외할 경우 10월 중 충북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7.2%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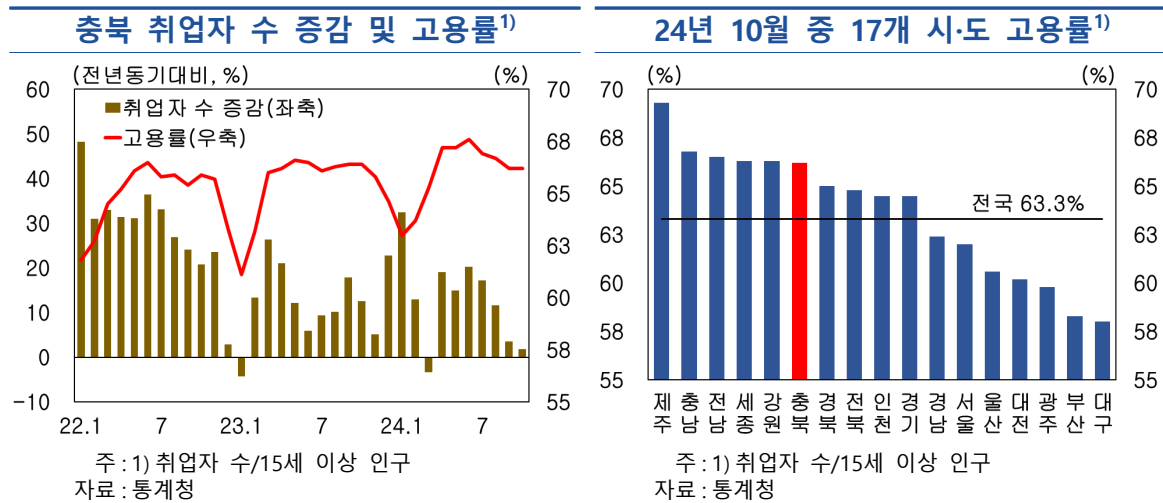
10) 충북 수출의 주요 대상국은 중국(2023년 비중 32.9%), 폴란드(4.7%), 베트남(4.6%), 미국(23.5%), 홍콩(7.8%), 대만(3.7%), 일본(3.6%), 헝가리(3.6%), 인도(1.4%), 말레이시아(1.1%) 등의 순이다.

Ⅱ. 10월 중 고용 동향

고용은 증가세 둔화

10.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10월 중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8천명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10월 고용률은 66.2%로 전월과 동일하였으며, 이는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10월 중 전국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83.2천명 늘어났으나 전월(+144.1천명)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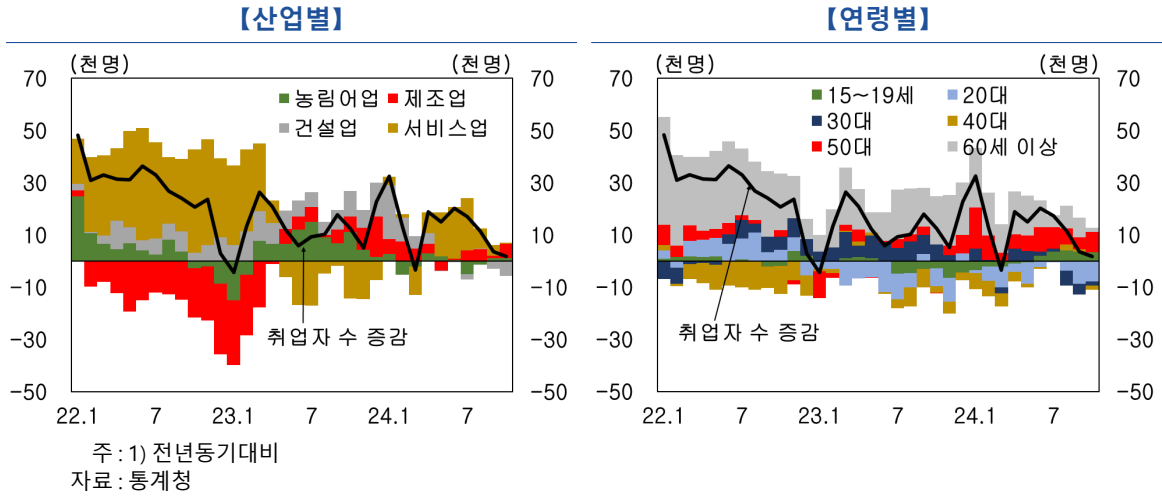


10.1. 취업자 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는 제조업이 5.4천명, 농림어업이 1.2천명, 서비스업이 0.5천명 늘었으나 건설업은 5.7천명 줄었다.

10.1.1. 서비스업 중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각각 1.7천명, 0.7천명 증가하였다. 반면 전기·운수·통신·금융은 1.9천명 감소하였다.

10.2.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과 1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0월 중 연령별 취업자 수는 50대가 7.7천명, 15~19세가 3.4천명, 60세 이상이 1.7천명 늘었으나 20대가 7.8천명, 40대가 1.8천명, 30대가 1.5천명 줄었다.

충북 취업자 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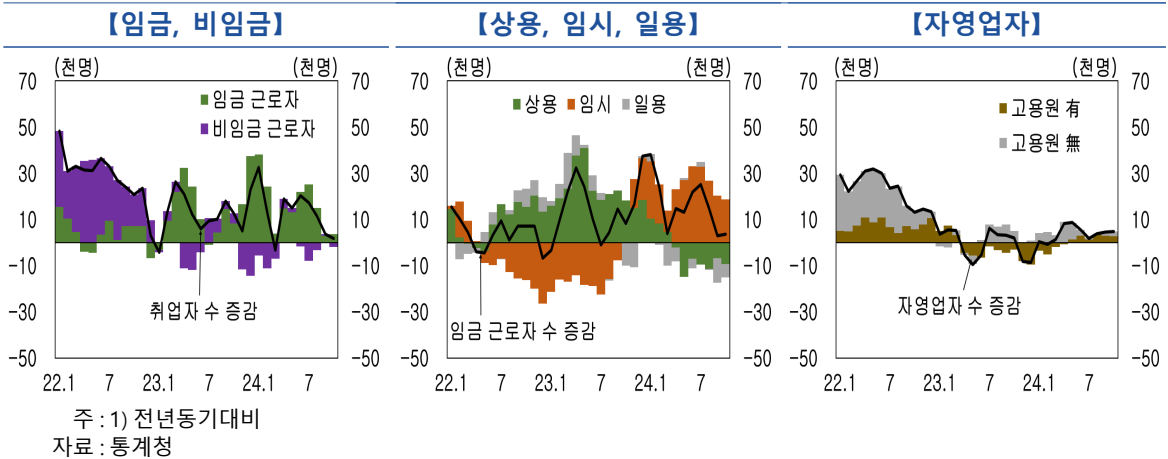


10.3. 종사자 지위별로는 임금 근로자를 중심으로 늘었다. 10월 중 임금 근로자는 3.7천명 증가하였으나 비임금 근로자는 1.9천명 감소하였다.

10.3.1. 임금 근로자는 임시직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10월 중 임시직은 18.7천명 늘었으나 상용직은 9.3천명, 일용직은 5.8천명 줄었다.

10.3.2. 한편 비임금 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7천명 증가하였다¹¹⁾.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6천명, 없는 자영업자는 2.2천명 늘었다.

충북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¹⁾



11) 반면 10월 중 비임금 근로자 중 무급가족 종사자는 6.5천명 감소하였다.

Ⅲ. 10월 중 주택가격 및 11월 중 소비자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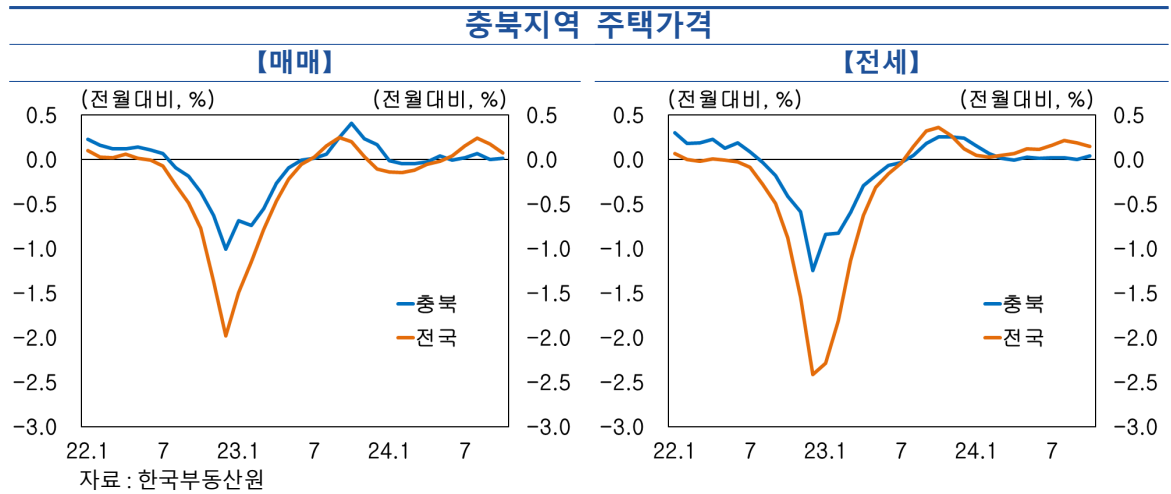
주택가격은 보합 수준 지속

11. 2024년 10월 중 충북지역 주택매매가격은 보합 수준(9월 중 +0.00% → 10월 중 +0.01%, 전월대비)이 지속되었다. 지역별로는 제천(+0.25% → +0.26%)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음성(-0.09% → +0.57%)은 상승으로 전환되었으며 청주(-0.05% → +0.00%)는 하락세가 멈췄으나 충주(+0.02% → -0.01%)는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전국】 10월 중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08% 오르며 전월(+0.17%)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12. 한편 전세가격(+0.00% → +0.04%)은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었다. 제천(+0.32% → +0.23%)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음성(+0.17% → +0.27%), 충주(+0.03% → +0.08%)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며 청주(-0.09% → +0.00%)는 하락세를 멈추며 전월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10월 중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5% 오르며 전월(+0.19%)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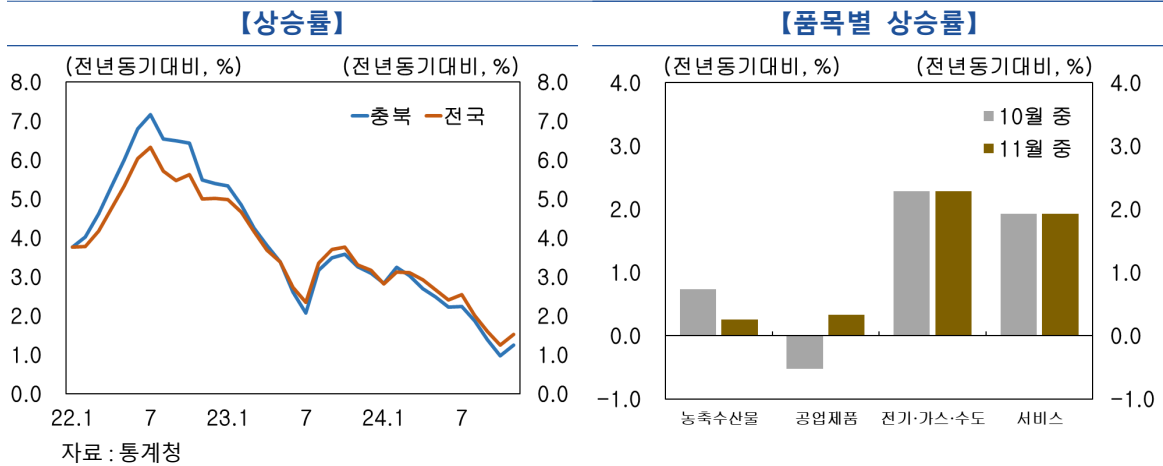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13. 2024년 11월 중 충북지역 물가는 낮은 수준의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2% 올라 전월(+1.0%)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지난 8월 이후 1%대의 상승률이 지속되었다.

【전국】 10월 중 전국 소비자물가도 전년동기대비 1.5% 오르며 전월(+1.3%)보다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13.1. 물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된 것은 공업제품(10월 중 -0.5% → 11월 중 +0.3%, 전년동기대비) 가격의 상승 전환에 주로 기인한다. 전기·가스·수도(+2.3% → +2.3%), 서비스(+1.9% → +1.9%)는 전월과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농축수산물(+0.7% → +0.3%)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충북지역 소비자물가



13.1.1. 세부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의 상승 전환은 내구재(-0.2% → +0.7%)의 상승 전환과 석유류(-10.7% → -5.9%)의 하락폭 축소에 주로 기인한다. 이외에 가공식품(+2.4% → +1.9%), 섬유제품(+2.1% → +1.7%), 의약품(+2.5% → +1.9%) 등은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13.1.2. 한편 농축수산물의 상승폭 축소는 농산물(-2.2% → -3.0%)과 수산물(+0.4% → -1.5%) 가격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 반면 축산물(+5.8% → +6.1%)은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충북지역 세부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

	【공업제품】		【농축수산물】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10월	11월	10월	11월
공업제품	-0.5	+0.3		
가공식품	+2.4	+1.9		
내구재	-0.2	+0.7		
섬유제품	+2.1	+1.7		
출판물	+1.8	+2.7		
석유류	-10.7	-5.9		
의약품	+2.5	+1.9		
화장품	+4.8	+4.8		
기타 공업제품	+0.9	+1.2		
			농축수산물	
			농산물	
			곡물	-2.7
			채소	+14.5
			과실	-20.4
			기타농산물	+4.0
			축산물	+5.8
			수산물	+0.4
				-1.5

자료 : 통계청

IV. 11월 체감경기

기업심리¹²⁾¹³⁾는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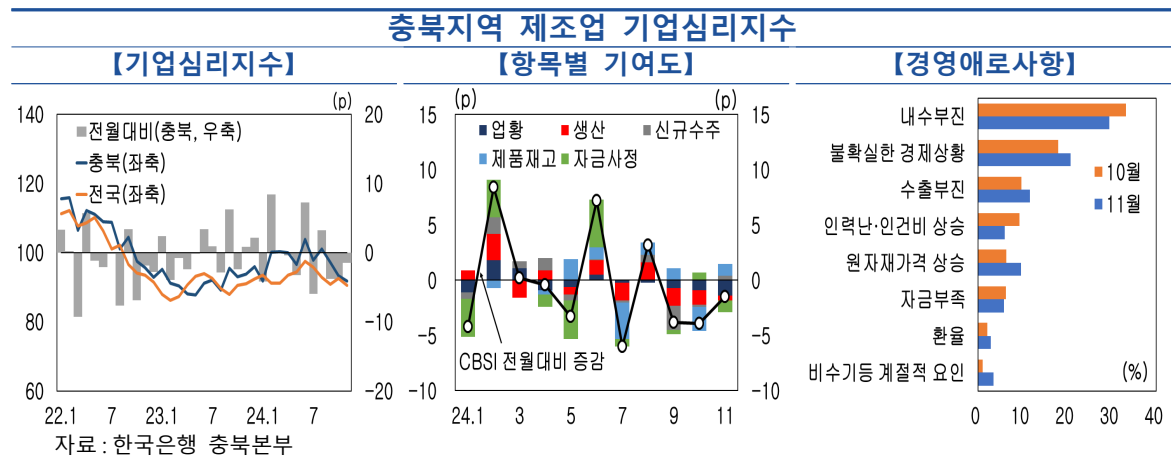
14. 2024년 11월 충북지역 제조업 기업심리는 9월 이후 악화되는 모습이다.

11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 Composite Business Sentiment Index)는 91.8로 전월(93.3)에 비해 1.5p 하락하였다. 제품재고(기여도 +1.1p), 신규수주(+0.4p)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업황(-1.4p), 자금사정(-1.1p), 생산(-0.4p)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국】 11월 전국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0.6으로 전월(92.6)에 비해 2.0p 하락하였다.

14.1.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29.5%)과 불확실한 경제상황(20.8%)을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보았다.

원자재가격 상승, 불확실한 경제상황, 수출부진 등은 전월보다 응답 비중이 상승(각각 +3.3%p, +2.8%p, +1.9%p)하였으나 내수부진, 인력난·인건비 상승 등은 비중이 하락(각각 -3.7%p, -3.3%p)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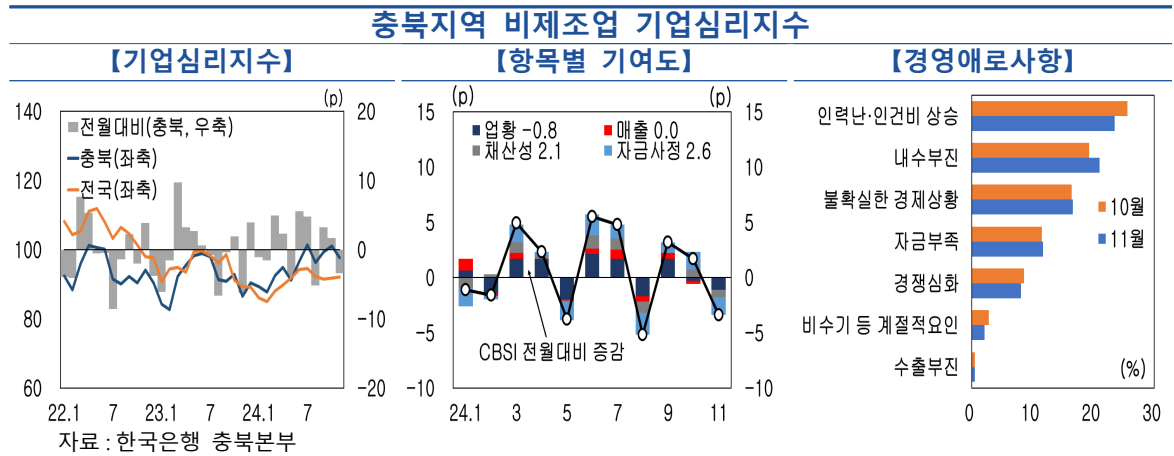
15. 비제조업 기업심리도 악화되었다. 11월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7.7로 전월(101.1)보다 3.4p 하락하였다. 주요 하락 요인은 자금사정(기여도 -1.6p)과 업황(-1.1p)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월 전국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2.1로 전월(91.7)보다 0.4p 상승하였다

12)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기업경기조사 결과이다. 11월 조사는 조사대상업체 456개 법인 중 431개 업체(제조업 218개, 비제조업 213개)가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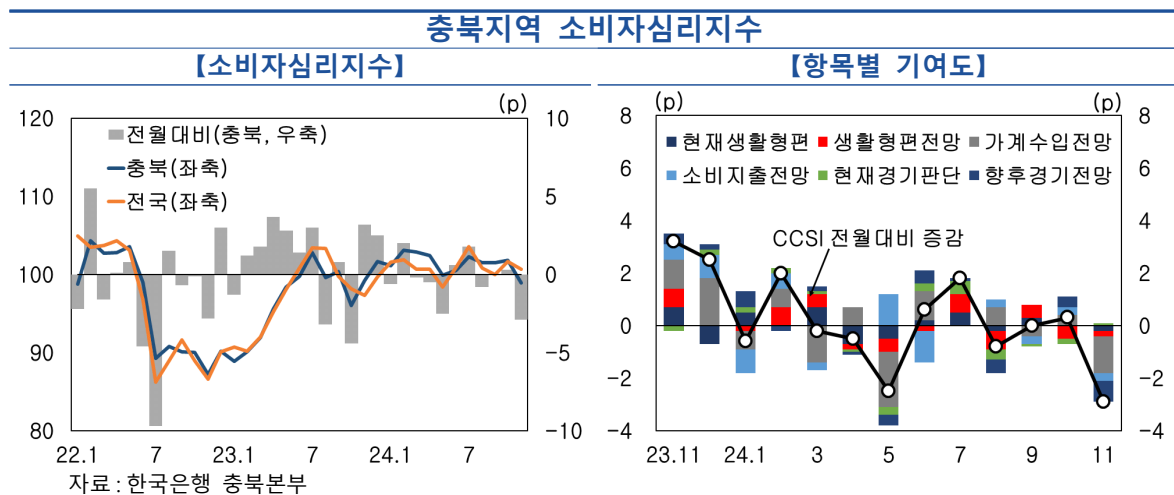
13) 기업심리지수(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15.1. 비제조업체는 인력난·인건비 상승(23.5%), 내수부진(21.0%), 불확실한 경제 상황(16.6%)을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보았다. 내수부진 등은 전월보다 응답 비중이 상승(+1.7%p)하였으나 인력난·인건비 상승, 비수기 등 계절적 요인 등은 비중이 하락(각각 -2.1%p, -0.7%p)하였다.



소비자 심리¹⁴⁾¹⁵⁾ 악화

16. 2024년 11월 충북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심리지수는 악화되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98.9로 전월(101.8)보다 2.9p 하락하며 6개월 만에 장기 평균치(100) 밑으로 떨어졌다. 6개 구성 지수 중 가계수입전망(기여도 -1.4p), 향후경기전망(-0.8p), 소비지출전망(-0.3p) 등 5개 지수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4)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이다. 11월 조사는 충북지역 3개 도시(청주, 충주, 제천) 조사 대상 400가구 중 368가구가 응답하였다.

15)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 평균치(2003년 1월 ~ 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V.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생산	제조업 생산	0.7	-12.1	-12.4	2.7	-2.5	-10.2	-13.5	..	
	제조업 출하	-3.5	-13.6	-12.7	-4.7	-5.9	-12.8	-5.5	..	
	제조업 재고	-22.3	-21.0	-27.1	-24.7	-21.0	-15.9	-8.5	..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 ¹⁾	3.7	3.5	1.7	2.7	2.4	-3.9	-0.7	..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	-10.6	-4.6	-3.6	-10.6	-1.2	-7.1	-9.1	..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	-5.0	-7.0	-15.8	6.6	-14.1	-7.6	12.0	..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 ¹⁾²⁾	4.8	4.4	2.9	2.7	3.4	-2.3	0.1	..	
투자	설비투자실행BSI ³⁾	8.0	7.0	2.0	4.0	7.0	2.0	1.0	..	
	기계류 수입액	-44.5	-18.0	-33.2	-18.1	40.8	8.2	9.0	..	
	건축착공면적	-41.2	-40.8	12.3	-40.2	38.6	7.1	-0.1	..	
	SOC 예산 지출액 ⁴⁾	-12.1	-14.7	-34.5	49.8	4.9	4.8	54.7	..	
수출	수출	-8.0	-5.4	0.7	-6.2	-11.0	-8.7	4.0	..	
고용	취업자 수 증감 ⁵⁾	19.0	15.0	20.3	17.2	11.6	3.6	1.8	..	
	산업별	농림어업	3.0	1.8	0.6	-4.9	-1.3	1.2	1.2	..
		제조업	3.7	-3.7	0.3	4.1	4.5	0.9	5.4	..
		건설업	4.1	-0.2	-0.5	-2.0	0.3	-2.9	-5.7	..
		서비스업	7.9	17	19.8	20.1	7.8	4.2	0.5	..
	연령별	15~19세	-1.0	-0.5	2.1	3.7	4.1	3.6	3.4	..
		20대	-3.2	-8.3	-2.4	-0.4	-3.8	-8.8	-7.8	..
		30대	4.8	3.9	1.6	1.1	-5.7	-4.1	-1.5	..
		40대	-3.5	-1.2	-0.7	0.0	2.3	1.0	-1.8	..
		50대	5.4	5.8	9.2	8.2	6.1	4.5	7.7	..
		60세 이상	16.4	15.3	10.4	4.5	8.7	7.5	1.7	..
	종사자지위별	임금 근로자	14.8	13.1	22	25.2	14.9	2.9	3.7	..
		(상용)	-2.2	-14.9	-7.1	-9.5	-11.5	-6.9	-9.3	..
		(임시)	23.1	27.0	33.1	32.9	26.8	20.4	18.7	..
		(일용)	-6.1	0.9	-4.0	1.9	-0.4	-10.6	-5.8	..
		비임금 근로자	4.1	1.9	-1.8	-8.0	-3.3	0.7	-1.9	..
		(자영업자)	8.3	8.6	5.4	1.8	3.8	4.5	4.7	..
<고용원 有>		-0.7	1.3	3.0	1.2	3.3	3.0	2.6	..	
<고용원 無>		9.0	7.2	2.4	0.7	0.5	1.5	2.2	..	
(무급가족종사자)		-4.3	-6.7	-7.1	-9.9	-7.1	-3.7	-6.5	..	
고용률 ⁶⁾	67.2	67.2	67.6	66.9	66.7	66.2	66.2	..		
주택가격	주택매매가격 ⁷⁾	-0.03	0.04	-0.01	0.02	0.07	0.00	0.01	..	
	주택전세가격 ⁷⁾	-0.01	0.02	0.01	0.02	0.02	0.00	0.04	..	
물가	소비자물가	2.7	2.5	2.2	2.2	1.9	1.4	1.0	1.2	
체감경기	제조업 기업심리지수 ⁶⁾	99.9	96.6	103.8	97.8	101.0	97.2	93.3	91.8	
	비제조업 기업심리지수 ⁶⁾	94.9	91.1	96.6	101.4	96.2	99.4	101.1	97.7	
	소비자심리지수 ⁶⁾	102.4	99.9	100.5	102.3	101.5	101.5	101.8	98.9	

주 : 1) 농협·신한·하나카드 기준 2) 역내 소비 기준 3) 장기 평균(94) 대비, 단위 : p 4) 지출 부문 중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5) 단위 : 천명 6) 당월 지표 7) 전월대비

